



노란 바탕에 다섯 정령이 모여 있습니다. 한가운데 팔을 높이 든 밝은 노란색 정령은 공간의 정령 아카샤입니다. 등에는 음표를 닮은 날개가 있고, 배에는 이 카드의 번호인 21이 적혀 있습니다. 아카샤는 다섯 정령의 중심에서 다른 정령들을 이끅니다.

왼쪽 위의 갈색 흙의 정령은 머리에 작은 돌 같은 뿔이 있고, 조금 시무룩한 얼굴입니다. 오른쪽 위의 민트색 공기의 정령은 구름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느껴 피곤한 듯 몸이 늘어져 있습니다. 왼쪽 아래의 붉은색 불의 정령은 활짝 웃으며 손을 뻗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이어지는 몸이 불꽃처럼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푸른색 물의 정령은 불의 정령이 내는 열기를 맏게 느껴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다섯 정령은 생김새도, 느끼는 방법도 다릅니다. 서로를 만나면 각자의 감각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 카드는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계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20



THE JUDGEMENT

연두색 날개를 펼친 파프리카 천사와 분홍색 아이스크림 악마가 마주칩니다. 파프리카 천사의 머리 위에는 동그란 고리가 떠 있고, 두 손에는 빨간색 권투 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악마는 체리 같은 빨과 불규칙한 주황색 날개를 가졌습니다.

아이스크림 악마는 파프리카 천사에게 함께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러 가자고 권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주먹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주먹에 맞은 아이스크림 악마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 작품에서 파프리카와 아이스크림은 작가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상징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싸움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볼지 결정하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이 카드는 앞선 「달」 카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절벽을 오르며 불안에 떨었던 마농이가 마침내 어려운 길을 지나왔습니다. 마농이는 자신의 노력을 기뻐하며 “두려움과 혼란을 극복한 내 모습이 멋져!”라고 외칩니다.

마농이의 몸은 연보라색에서 선명한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해진 자신감을 색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신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마농이를 맞이합니다. 태양신은 수고했다며 마농이를 칭찬하고, 두 캐릭터는 무지개 위로 함께 올라갑니다. 달 카드가 두려움 속에서 계속 오르는 시간이었다면, 태양 카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성취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보자기가 달린 막대기를 든 캐릭터 마농이(마늘)가 스스로 절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몸 전체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두려움과 혼란을 혼자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즈(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보자기와 달맞이꽃에 담긴 것은 마농이가 포기하지 않고 얻어내려는 희망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네 개의 별과 달은 힘들어하며 울고 있지만,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 카드의 모티브는 동화 「어린 왕자」입니다.

캐릭터 해양이(해바라기 고양이)와 가시리(가지)가 우주에서 여러 행성을 배경으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잘 맞는 기쁨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밝은 하늘색의 우주는 넓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행성과 달은 각각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칠해 서로 다른 친구들과의 여정을 나타냈습니다.

밝은 하늘색의 여섯 개의 밝은 하늘색 오각별은, 친구와 함께 나눈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모티브는 유적지 「피사의 사탑」입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한 탑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카드답지 않게 흔들리는 구도를 사용했습니다.

탑을 자세히 보면 갈색에서 초록색을 거쳐, 노란색까지 내려오는 그라데이션 배색입니다. 갈색 계통의 위쪽(5층→4층)은 반복적인 탈선을, 초록색 계통의 가운데(3층)는 지금의 나를, 노란색 계통(2층→1층)은 탈선을 없애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탈선은 '선한 마음이 파괴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달은 탑을 굽어살피듯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다섯 개의 연두색 오각별은 다시 세우자고 응원하듯 빛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햄버거 모양 마카롱 악마가 블루베리 시럽이 흐르는 아이스크림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악마는 눈을 감고, 혀를 내민 채 만족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노란 팔각별 고리가 떠 있고, 등에 달린 두 쌍의 날개는 초콜릿색과 민트색입니다.

아래에는 작은 마카롱 악마 둘이 있습니다. 초록색 악마는 화가 나 있고, 분홍색 악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가운데의 악마가 자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의 음식까지 빼앗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악마는 아주 조금밖에 먹지 못했으며, 분홍색 악마는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야위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앉은 악마는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즐겁지만, 아래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한 존재의 욕심이 다른 존재의 몫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커다란 마카롱 악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호박석을 닦은 주황색 꿀벌 앰비가 땀을 흘리며 줄넘기를 합니다. 앰비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뒤,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이를 악문 얼굴에는 스스로를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멀리 숫자 1과 4가 새겨진 건축물 위에서는 보라색 공룡 디아뿌가 앰비를 지켜봅니다. 디아뿌는 앰비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피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달은 아직 빛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품의 이야기에서는 앰비가 절제하면 달이 차오르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 줄어듭니다. 달의 변화에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선택과 연습이 담겨 있습니다.

13



THE DEATH

천수국 발레타와 물망초 미티스는 오랜 친구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손을 잡고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티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발레타는 친구를 기억하기 위해 흙을 모아 집 모양의 무덤을 만들고, 지붕 위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잠시 뒤, 날개를 단 미티스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두 친구는 다시 만나,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미티스가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미티스는 초록, 파랑, 보라로 이어지는 꽃잎을 뿌립니다. 함께한 시간을 잊지 않겠다는 인사처럼 보입니다.

미티스가 떠난 뒤, 발레타는 무덤을 찾아 친구를 그리며 노래합니다. 발레타도 생을 마친 뒤에는 미티스의 영혼과 다시 만납니다. 이 카드는 죽음을 통해 친구를 잃은 슬픔과 오래 남는 기억,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키가 큰 노란색 미역취 미치와, 키가 작은 초록색 방울양배추 바추가 함께 나무에 오릅니다. 먼저 꼭대기에 오른 미치는 튼튼한 가지에 덩굴을 묶고, 다리에 덩굴을 매달입니다. 바추에게 번지점프를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덩굴이 너무 짧아, 미치는 나무 아래 겨우살이 무리 근처에서 거꾸로 매달리고 맙니다.

뒤따라 올라온 바추는 덩굴을 묶지 않고 곧바로 뛰어내립니다. 바추가 빠르게 떨어지자 미치는 친구를 잡으려고 팔을 뻗습니다. 미치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미역 냄새를 칼처럼 만들어, 덩굴을 자르고 바추를 따라 내려갑니다. 하지만 땅에 도착했을 때, 바추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추는 땅에서 자유롭게 춤추다가, 사람에게 발견되어 스튜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미치와, 아래로 떨어지는 바추를 보여 줍니다. 두 친구는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예상하지 못한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THE JUS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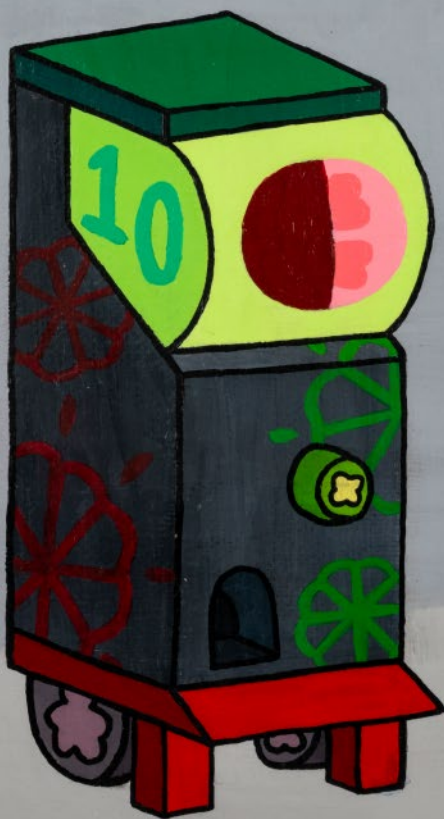
사스레피나무 저스피가 산꼭대기에 서서 외칩니다.

“자유롭게 살되, 그 몸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라!” 저스피가 말하는 자유에는 자신이 선택할 권리와 스스로를 돌볼 책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린 씨앗이었을 때 저스피는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저스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 주기 위해 산에 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을 헛디뎈 굴러떨어질 뻔하고, 계곡물에 빠질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을 잃는 일도 겪었지만, 다시 자라나며 여러 해 동안 길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산꼭대기에 선 저스피의 등에는 커다란 잎이 날개처럼 돋았습니다. 머리 위의 주황색 마름모 세 개는 스스로 정한 길을 걸어온 저스피에게 주어진 왕관처럼 보입니다. 이 카드는 정의를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과정으로 그립니다.

THE WHEEL FORTUNE



이 카드에서는 독특하게 가차 머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가차 머신에는 달과 네잎클로버가 새겨져 있으며, 배경에도 같은 요소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가차 머신은 원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랜덤으로 작동하는 구조인데, 이를 네잎클로버의 꽃말인 '행운'으로 연결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서 일을 해내자는 뜻으로 떠올렸습니다.

앞쪽에 새겨진 달을 반으로 나누고, 그 안에 반쪽짜리 네잎클로버를 그려 넣어 '좋은 기회'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베엘제부포(보라색 개구리)가 물가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베엘제부포는 오래도록 웅덩이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먹이를 찾고, 몸을 숨기고, 위험을 피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보라색 몸에는 숨고 싶은 마음이, 하늘색 물가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베엘제부포의 한쪽 팔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향해 올라가 있습니다. 발밑의 물에도 작은 소용돌이가 맴돌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베엘제부포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바깥 세상을 향한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드레드노투스 전사가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붉은 눈에는 물려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왼손에는 악력기를, 오른손에는 아령처럼 생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전사는 바위를 갈아 직접 도구를 만들고, 동료들 지키기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육식 공룡과 라이벌에게 맞서는 동안, 목과 배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밑의 바위는 앞으로도 자신을 단련하겠다는 마음을, 꼬리에 달린 고무줄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 줍니다. 머리 위에 뜬 해, 주변에 퍼지는 꽃과 빛에는 동료들의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의 힘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가 지켜 온 관계와 더불어 다시 일어서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용기를 나타내기 위해 배경을 빨간색 계통으로 칠했습니다. 상자 같은 비행기는 '전진'의 의미로 연결하였습니다. 오른쪽 날개에는 숫자 07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이 허리에 손을 얹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숫자는 자신감과 용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캐릭터 뽀기(분홍색 로제 떡볶이로 변한 상태)와 당토(아빠 토끼와 엄마 당근을 둔 혼혈 생물)는 아무 걱정 없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여행 도중 겪는 고난과 불안감을 분홍색, 빨간색, 다홍색, 주황색으로 빛나는 유성우와 분홍색 달로 표현하고, 이를 자신감과 용기로 극복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비행기 아래의 땅은 빨간색에서 주황색을 거쳐, 노란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땅 위에는 버섯이 세 개 자라고 있는데, 이는 두 친구가 다다르게 될 우정의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장미꽃 같은 분홍빛 달무리를 빔내는 달 아래에서
샬리(토끼+초승달+셀레늄(Selenium))와 테리(햄스터+
지구+텔루륨Tellurium))가 어깨동무를 하며 웃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정위치와 역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순수하게
유대감과 우정, 기쁨을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보름달은
이러한 의미를 상징합니다.

달무리는 유대감과 우정이 기쁨으로 퍼져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05



THE HIEROPHANT

해바라기를 닮은 해바치, 그리고 작은 꽃봉오리 해내리가
들판에서 누군가를 응원합니다. 해바치는 해바라기 모자를
쓴 채 두 손에 응원 도구를 들었습니다. 해내리는 그 곁에서
춤을 춥니다. 두 친구는 햇빛을 받으며 노래하고 웃습니다.
이 카드에서의 가르침은 엄숙한 말보다 힘을 주는 응원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친구들도 해바치의 노래를 듣고,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해바치가 밟고 있는 꽃은 햇빛과
웃음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응원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담은
카드입니다.



THE EMPEROR

타이거 아이에서 태어난 타이기가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굴립니다. 호랑이를 닮은 귀와 긴 꼬리가 있고, 몸에는 노란색과 갈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타이기는 한쪽 눈을 감고 밝게 웃으며 힘차게 움직입니다.

타이기는 축구를 좋아해 하루에도 여러 번 공을 잡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힘을 길러 왔습니다. 배에 있는 삼각형과 다이아몬드 무늬에는 축구뿐 아니라 다른 운동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타이기는 새로운 운동을 만나고 연습하며, 본인이 꿈꾸는 '스포츠왕'에 조금씩 가까워지려 합니다.

03



THE EMPRESS

장미를 닮은 엄마 로도미가 하늘색 유모차를 밀고 있습니다.
유모차에는 찔레를 닮은 아기 찔로가 타고 있습니다.
로도미는 찔로가 행복하기를, 찔로는 로도미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마법처럼 옷을
만들었습니다. 로도미는 분홍 장미 옷을, 찔로는 노란 찔레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판을 지나며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발밑에는 하트와 별을 닮은 꽃이 피어납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고마운 마음이 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카드는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며 함께 자라는 관계를 보여 줍니다.



에틀랑은 흰토치진저 꽃에서 태어난 요정입니다. 에틀랑이 살아온 세상은 차분한 회색빛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을 조심합니다. 하지만 에틀랑은 늘 다른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초록색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바라보는 모습에도 그 호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에틀랑은 꽃과 잎을 화사한 옷으로 만들고, 커다란 잎 위에 올라섭니다. 마치 새로운 곳으로 뛰어들기 위한 발판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 말리더라도 에틀랑은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에틀랑은 그 시간을 지나며 자신만의 모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픽셀 아트와 가상현실을 콘셉트로 한 카드입니다.

이번에는 폴로(플로라이트)가 VR 장비를 착용한 채, 픽셀 아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재킷에는 나무를 닮은 전자 회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글에는 커다란 눈 하나가 그려져 있고, 폴로의 입은 웃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을 아바타처럼 경쾌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달은 둥근 형태가 아니라 픽셀 도트 그래픽처럼 표현되어, 가상의 느낌을 더욱 강화합니다.



회색 탐험가가 종이배 모자를 쓰고 일곱 장의 카드 앞에 서 있습니다. 탐험가는 클리어 퀴츠에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탐험가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동그랗게 벌린 것은 카드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배 모자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일곱 장의 카드에는 각각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하늘, 파랑, 보라가 들어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이어지는 이 색들은 카드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탐험가는 이야기를 하나씩 만나며 세상을 둘러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려 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탐험가는 어떤 자신을 만나게 될까요?

© 2026 주식회사 위케이션의 출판사 석굴암. 대표이사 오정민

모든 작품과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배포·수정을 금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전재·배포·공중송신·변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초판 1쇄 인쇄

2026년 10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6년 10월 30일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505호

연락처

+82-10-2761-3805

전자우편

foundationlove@naver.com

ISBN

가격

50,000원 타로카드 포함

기획·큐레이팅·접근성·글·발행인

| 주식회사 위케이션 대표이사 오정민

출판·발행처

| 주식회사 위케이션 석굴암

작품

| 신현채

작업실 풍경 작품 및 영상 촬영

| 아트플랜트 대표 옥진화

디자인

| 럽포 대표 오정혜

예술가가 운영하는 기업
주식회사 위케이션

X

예술가
신현채



브로슈어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